

“주말에 통영에 가보는 게 어때?”

난데없는 아빠의 말씀에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왜 갑자기 통영이에요?”

“통영에는 충무김밥이나 꿀빵 같이 맛있는 게 많거든. 아빠가 충무김밥을 좋아하잖나. 오랜만에 바다도 보고.....”

그래서 날씨 좋은 주말에 우리 가족은 통영에 갔다.

“이번에는 아빠가 아는 분이 있어서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예약했다. 너희들 역사 공부 좀 하라고.”

그래서 아빠의 뜻에 따라 이순신 장군 유적지에 가게 되었다. 사실은 동피랑 마을의 유명한 날개 벽화를 먼저 보고 싶었지만 예약 시간에 맞춰야 해서 할 수 없었다.

“통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삼도수군통제영입니다. 통영이라는 도시 이름이 삼도수군통제영의 줄임말일 정도로 이곳은 통영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지요.”

우리는 해설사 아저씨가 가리키는 곳으로 눈을 돌렸다. 그러자 눈앞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목조 건물이 나타났다. 현판의 글자도 어마어마하게 컸고 커다란 기둥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위압감을 느낄 정도로 크고 웅장했다.

“여기가 통제영의 중심인 세병관입니다. 세병관이란 이름은 은하수 물에 무기를 씻는다는 뜻입니다. 통제영은 수군의 기지니까 무기를 쓰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세병관의 뜻은 무기를 쓰지 않고 씻어서 보관한다는 말입니다. 전쟁 기지인데 무기를 쓰지 않겠다니 좀 이상하지요? 그만큼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으로 우리 조상들의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잘 나타냅니다.”

아저씨의 말을 듣고 세병관이란 말에 깊은 뜻이 담겨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해설사님, 원래 이곳이 충무라고 불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왜 통영으로 바뀌었지요?”

아버지의 질문에 아저씨는 껄껄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통영에 아주 관심이 많으신 분이군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아저씨의 설명에 따르면 통영은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큰 활약을 벌인 도시로 이순신 장군의 시호인 ‘충무공’을 따 충무시라고 불렀으나, 이후에 조선의 수군을 총괄하던 통제영이 있던 군사도시임을 기리기 위하여 원래 이름인 ‘통영’으로 바뀌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통영에서 활약하셨기 때문에 삼도수군통제영이 처

음으로 생긴 거지요.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통영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이순신 장군이 통영을 만들었다고요?”

“그렇게 볼 수 있단다. 임진왜란 전에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수군의 기지가 따로 있었거든. 이순신 장군도 원래는 전라도의 수군을 지휘하는 대장이었지. 그러다가 이순신 장군이 승리를 계속 거두자, 이순신 장군에게 바다를 전부 맡기기 위하여 임금이 삼도수군통제영이라는 벼슬을 처음으로 내린 거란다.”

거북선을 만든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높은 분인지는 솔직히 몰랐다.

“이 거대한 건물 안에서 삼도수군통제사는 부하들과 함께 힘을 합해 바다를 지켰지요. 삼도수군통제사가 얼마나 막강했나 하면 삼도의 모든 현감이나 군관들이 모두 통제사의 부하일 정도였지요.”

통제사가 배를 타고 훈련을 하는 그림도 봤는데 통제사의 부하들이 탄 배가 엄청나게 많았다.

점심을 먹고는 배를 타고 한산도로 향했다. 유람선을 내려 바닷가를 따라 걸으니 제승당이 보였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시를 썼던 유명한 수루도 보였다. 제승당 입구에서 한산도 대첩을 승리로 이끈 학익진에 대한 자세한 안내판을 보았다.

“우와, 이순신 장군 정말 대단하다. 학익진이 엄청나게 뛰어난 작전이네.”

“그러게요. 영화로 본 명량대첩만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미 영화로 봐서 잘 아는 명량해전에 이어 한산도 대첩의 학익진까지.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다.

제승당 앞에는 조용히 참배하라는 안내가 있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사실 이순신 장군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는데 해설사 아저씨 말을 듣고 나니 정말 위대한 분 같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수루와 활터 등을 둘러보고 저녁 늦게 집으로 왔다. 비록 동피랑을 가보지 못한 아쉬움이 남지만, 이순신 장군의 유적을 견학하니 ‘명량’ 영화를 다시 보는 느낌도 들고 좋았다. 차에서 먹는 거북선 꿀빵의 달콤함만큼이나 통영은 기분 좋은 여행이었다.